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AI오리 이동경로 '오리무중'

첫 발병지 전북 고창·부안 이어 정읍서도 감염 의심 신고
감염지역 오리 시중 유통…닭·오리고기 매출 크게 줄어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제주의 한 철새 도래지에서 청둥오리 1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AI가 발견된 전북 부안의 오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 닭과 오리의 매출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 정읍서 AI 의심신고…긴장

21일 오전 전북 정읍 고부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은 야생 가창오리 떼의 월동지인 동림저수지의 서쪽이지만, 고부면은 동림저수지 북동쪽에 있다.

이는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 떼가 고창·부안뿐 아니라 활동 반경 전 지역에 AI 바이러스를 뿌렸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만든다. 가창오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머물고 있으며 하루 활동 반경은 30~40km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찰 활동을 통해 전북 고창·부안의 발병 농가 인근에서 AI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 5곳을 확인했으며 이 중 한 곳은 H5N8형 AI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병원성 H5N8형 AI에 감염된 오리 농장은 4곳으로 늘었다. 농림식품부는 나머지 4개 농가도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AI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0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AI 사태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 떼가 저수지 주변에 이미 AI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뿌렸다면 축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 부안 오리 유통 논란…매출 뚝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오리 농가에서 공급된 오리가 나주의 한 오리 도축장을 거쳐 시중에 유통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AI가 첫 발병된 17일 나주 도축장에서는 부안에서 들어온 오리 6240마리와 나주 등에서 들어온 1만3500마리 등 모두 1만9740마리가 도계돼 생체·훈제 등으로 가공됐다.

도는 21일 오전 이 도축장을 폐쇄 조치했지만 이미 7400여 마리는 인근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압장으로 반입될 때 오리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AI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는 만큼 설사 유통됐다고 해도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가금류 구입을 꺼리고 있다. 이마트는 AI 발병 사실이 알려진 17~19일 사흘간 닭과 오리고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2주 전에 비해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서도 17~18일 오리고기 매출이 전주 대비 18.7%, 닭고기 매출은 18.7% 줄었다.

야생 오리가 AI 감염원으로 지목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더 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 당국은 기존의 '포위망형' 방역 체계를 재수정해 방역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 순천시는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철새 도래지 찾은 장관 이동필(맨 오른쪽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전북 군산의 금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철새 이동 차단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고창·부안에 이어 정읍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폭설 속 방역하는 장병 21일 군 장병들이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인근에서 폭설을 맞으며 방역근무에 임하고 있다. 당국은 포위망형 방역 체계를 수정해 방역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귀성·31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

고속도로 혼잡 극심 예상

설연휴 예상 소요시간 (고속도로 이용 승용차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 연합뉴스

올 설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31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6시간50분. 귀경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7시간20분, 광주→서울 5시간30분 등 부산·광주는 지난해보다 각각 20~30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부산 최대 8시간 걸릴 듯

국토교통부는 21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276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554만 명으로, 설 당일에는 최대 662만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000 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교통수요 조사에 따르면 귀성 시에는 30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많고, 귀경 시에는 31일 오후 출발이 32.9%, 2월 1일 오후 출발이 27.4%로 예측됐다. 설 당일부터 토요일까지 귀경 교통량이 다소 집중되고, 이후 일요일까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3%로 가장 많고 버스 12.0%, 철도 3.9%, 항공기 0.5%, 여객선 0.3%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0.1%, 서해안선이 13.3%, 중부선 9.6%, 남해선 8.2%, 영동선 7.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열차 353량, 고속버스 1773회, 항공기 24편, 여객선 143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키로 했다.

또 경부선 서울~천안 구간 나들목과 휴게소 부근 등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구간(141km)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평시보다 4시간 늦은 오전 1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도 31일~다음달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박선옥기자

캐시미어 코트의 배신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비싸지만 가볍고 따뜻해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100% 캐시미어 코트가 짝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1개 남성 코트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의 함량 미달이었다. 캐시미어 함유량은 10%대에 불과했고 대신 싸구려 야크 털을 섞어 팔았다.

야크 털은 캐시미어 가격의 4분의1 수준으로 싸지만 촉감이 비슷하고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다. 일부 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무늬만 캐시미어 코트를 생산, 폭리를 취한 것이다.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는 "공인시험 인증기관의 결과에 따라 캐시미어 혼용률 100%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 행위는 아니었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브랜드 하나만 보고 큰 돈을 썼는데, 정작 기업은 시험 원단 업체의 평가서만 믿고 100% 표기를 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니 결국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 덕에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지만, 정작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는 것만으로는 진짜 캐시미어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자들의 올바른 품질 표시와 관리가 절실하다.

감사원 "74조 투입될 '해안권 개발' 총체적 부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4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감사원은 2012년 11~12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한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252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조현정기자

"어이쿠! 큰 일 날뻔했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성국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서청원(왼쪽)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로 향하다 이우현 의원과 머리를 부딪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女 경리직원이 공금 30억 횡령

그간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건설에서 30억원대 대형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 내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한 여직원이 30억원대의 돈을 빼돌렸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계약직 신분의 이 여직원은 결재 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 시스템 접속 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 공사장의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이 직원의 횡령 동기, 횡령 기간,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 감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선옥기자

安신당 3월까지는 뜬다

안철수 "다음달 창당준비위원회 발족…17개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낼 것"

안철수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1일 "2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3월까지는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제주 벤처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에서 국민 삶이 사라지고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 낡은 틀로는 더는 미루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움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창당의 결심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이 같은 창당 일정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이념과 지역을 볼모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존중의 대상이지, 증오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 시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당은 극단주의나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공간으로 기득권 정치 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구조를 생산적 경쟁 구조로 바꾸는 게 목표"라며 "선거용 정당으로 만든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선거용 정당 만든 것 아니다"

이날 윤여준 의장은 '2월 창당준비위 발족-3월 내 창당' 일정을 밝힌 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다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국민과 함께

화기애애' 출정식 21일 오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왼쪽) 의장과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이번에도 '한복외교' 2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베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오후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리비아 납치범 돈 노린 듯

한석우 무역관장 안전 확인

리비아에서 무장 괴한에 의해 납치된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의 안전이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피랍자 신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의 테러 행위라고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무역관장의 안전을 확인한 경위나 소재, 납치 세력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아직 납치를 주장하는 테러단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납치가 금품을 목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비공식 조직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리비아에서 납치 문제를 경험한 국가 및 리비아 인접 국가들과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 화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 /김민준기자 mjkim@

류길재 통일 "북 중대제안 받을 수 없는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연일 대남 평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중대 제안은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 IT 포럼'의 강연에서 "작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계기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던 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무산된 것 때문 아니냐"며 "무산된 지점(이산가족 상봉)부터 다시 하자"고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중대 제안은 들어다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제안했다"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류 장관은 또 "설령 북한이 제안한 걸 호의인 것처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남북 관계가 얼마나 가겠느냐"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KTX 타고 인천공항 간다

상반기 수색연결선 개통되면 서울역서 환승할 필요없이 곧바로 이동

올 상반기 중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곧바로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올해 5개 구간 73.9km의 철도를 개통하고, 11개 구간 420.6km를 착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개통되는 구간은 지역 간 철도 2개 구간(43.5km)과 광역철도 1개 구간(1.9km), 도시철도 2개 구간(28.5km)이다.

이 중 지역 간 철도는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을 하기 위한 수색연결선(2.2km)과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복선전철(41.3km)이 개통된다.

특히 수색연결선의 개통으로 신경의선(문산~용산)과 인천공항철도가 연결되면, 부산·광주 등에서 KTX로 서울로 올라온 이용객들이 서울역·용산역 등에서 리무진버스나 공항철도로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광역철도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중 용산~공덕 구간(1.9km)의 개통으로 경의선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에 따라 용산~문산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20분대에서 59분으로 단축된다.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논현~잠실운동장 구간(4.5km)과 대구지하철 3호선 동호동~범물동 구간(24.0km)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5개 철도 노선의 개통으로 국민이 보다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11개의 철도 사업을 신규로 착공함에 따라 향후 철도 건설 부문만 11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경의선~인천공항철도 연결 사업

아덴만 여명 작전 어느새 3주년 아덴만 여명 작전 3주년인 21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앞 해상에서 해군 특수전부대(UDT/SEAL) 대원들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대지진 후 한반도 동쪽으로 1.6~3.3㎝ 이동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동쪽으로 1.6~3.32cm가량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가까운 울릉도와 독도는 4~5cm 넘게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1일 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반영해 이와 같이 변동된 국가기준점(위성기준점 79점, 통합기준점 1200점) 위치값을 27일 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이란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설치한 측량이 되는 기준점으로 건설 공사나 지도·지적도 제작, 공간정보 등을 구축할 때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된다. /윤다혜기자 yd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소설가 박완서 별세

한국 여성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활동한 소설가 박완서가 2011년 1월 22일 지병인 담낭암 투병 중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서울 숙명고등여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국문과에 합격했으나 입학 당시 한국전쟁으로 중퇴했다. 전쟁 중 취직한 미군 초상화부에서 박수근 화백과의 만남으로 계기를 얻은 '나목'으로 1970년 미혼 삶에 흑단 하고 오늘의 비평가 과 독자를 사로잡는 문제작들을 발표했다. 그녀는 분단 체험과 소시민적 허위, 여성의 정체성 추구를 주제로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강북구 고교장학생 75명 선발

서울시 강북구가 구 거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75명으로 연간 수업료 145만9800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강서구 설연휴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강서구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9일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한다. 한파특보 발령에 대비한 한파쉼터 임시대피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24만원짜리 교복 원가는 겨우 8만원

평균 가격이 24만원인 중·고등학생 교복 중 동복 원가가 8만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본부장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원식·유기홍·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유통에 따른 소비자가격 추정'을 발표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복 기준 중·고등학생의 평균 개별 구입 가격은 약 24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원가공비가 5만원, 원·부자재비가 3만원 등 제조원비가 최대 8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광고비, 운송비, 창고비 등 교복 브랜드 업체의 간접비와 영업이익이 더해져 대리점으로 넘어갈 때의 출고가는 15만원이 된다.

대리점은 자신들의 인건비·임대료·영업이익 등 9만원을 추가해 소비자들에게는 평균 24만원에 판매한다. /윤다혜기자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로

올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전국 115만명 '카드런'

재발급 신청 62만·해지 요청 53만…정보유출조회는 650만명 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에 21일까지 재발급이나 해지를 신청한 회원 수가 11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22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이들 카드 3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카드 재발급을 신청한 고객은 NH농협카드가 30만8000명, KB국민카드가 16만8000명, 롯데카드가 14만800명으로 총 61만6800건으로 집계됐다.

카드 해지 건수까지 합치면 114만 9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이후 카드 변경 조치를 취했다.

같은 시각까지 카드 해지(탈회 포함)를 요청한 숫자는 NH농협카드 26만4000명, KB국민카드 23만9000명, 롯데카드 2만9700건으로 총 53만2700건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정보 유출 사실을 조회한 회원은 650만 명에 달했다.

KB국민 309만3000명, 롯데 200만7000명, NH농협 13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카드사 영업점과 은행 등에는 연일 카드 재발급·해지·정지를 요구하는 방문자가 쇄도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도 고객 민원과 문의가 폭주해 서비스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날 서비스 마비로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한 고객들은 물론,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점차 불안해진 고객들이 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과 고객 피해 확산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kim1@

'못 믿겠다' 카드 재발급 행렬 21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모집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담당할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건설 현장 안전 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 130명이다.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최승욱 세계체육학회 부회장

성신여대는 21일 스포츠레저학과 최승욱(51) 교수가 세계체육학회(ICHPER·SD) 아시아본부 부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오는 2017년 12월까지 총 4년간이다.

생명보험재단 어린이집 3곳 지어 기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인천 연수구,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73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에 기부하는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은 지상3층, 정원 119명의 규모로 기부재납액은 24억2000만원이다.

서울시 종로구의 종로생명숲어린이집(사진)은 지하 1층~지상 3층, 정원 108명 규모로 기부채납액은 25억3000만원이며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생명숲어린이집은 지상 3층, 정원 119명으로 기부채납액은 23억2000만원이다.

재단은 현재까지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오산시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에 78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했다.

베트남 AI 사망자 발생

A/H5N1 바이러스 감염 50대 남성 숨져—필리핀은 중국산 가금류 금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아시아 전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베트남 남부에서 올 들어 첫 AI 사망자가 나왔다.

21일 베트남 언론은 보건 당국을 인용, 빈푹성 지역에서 고열과 호흡곤란, 기침 등 AI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남성이 지난 18일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혈액검사 결과 AI의 원인 바이러스인 A/H5N1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방역 당국은 이 남성의 주변 지역에서 사육하던 가금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했다고 했다. 이어 빈푹성 보건국에 해당 지역 가금류의 AI 감염 여부를 조사, 대응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부 박닌성, 옌퐁과 따옌두 등지에서도 가금류 수천 마리가 A/H5N1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부 띠엔장과 중남부 닌투언, 동탑, 롱안성 등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설을 앞두고 가금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필리핀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AI와 관련, 중국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육류 수입을 금지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신종 H7N9형 AI 감염 환자 수가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사람 간 전염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전역 킹 목사 추모행진 20일(현지시간)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추모하는 날로 이날 미 전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AP 연합뉴스

러 경찰 "검은 과부를 잡아라"

'소치 테러' 예고에 초비상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테러 방어작전 '강철 고리'가 가동되기도 전에 뚫렸다. 최근 '검은 과부'의 테러 자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당국은 비상에 걸렸다. 검은 과부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반군 소탕 작전에서 남편이나 친인척을 잃고 복수에 나서는 여성을 말한다.

20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소치 경찰은 남부 다게스탄에서 온 루잔나 이브라기모바(22)의 사진이 담긴 긴급 수배 전단을 현지 호텔과 올림픽 웹사이트에 배포했다.

수배 전단에 따르면 루잔나는 이달 초 다게스탄을 떠나 10일 전쯤 소치에 도착했으며 왼쪽 뺨에 10cm 길이의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전다.

루잔나는 지난해 다게스탄에서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남편을 잃었다. 그는 테러 조직 '캅카스 에미리트'와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캅카스 에미리트는 소치 올림픽을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다. /조선미기자

中 1만t급 해감선 건조

중국이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최대 순시선보다 더 큰 배수량 1만t급의 해양감시선(해감선)을 건조하고 있다.

21일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군수기업인 중환중공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701연구소'가 1만t급 해감선과 4000t급 해감선을 건조하는 계약을 지난해 정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가장 큰 해경선박은 4000t급의 '해감50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세계에서 가장 큰 7175t급의 시키시마급 순시선 두 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해경선박 건조에 나선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조선미기자

중무장한 우크라이나 시위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 무산에 항의하며 시작된 우크라이나 야권의 시위는 한때 소강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강력한 '시위규제법'을 통과시켜 다시 불이 붙었다. 키예프에서는 19일과 20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대규모 부상자가 나왔다. /AP 연합뉴스

'시리아 회담' 이란 초청 철회

유엔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 평화회담(제네바-2 회담)에 이란 정부를 초청한 것을 전격 철회했다.

20일(현지시간)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란 정부는 제네바-2 회담의 내용을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여러 차례 표했다. 그러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이번 회담에 이란은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엔이 이란 초청을 철회한 것은 이란 정부가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을 요구한 이른바 '제네바-1 회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을 초청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 것도 철회 요인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금융기관 피싱사이트 2년새 79배 급증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가 2년 새 79배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차단된 피싱사이트 건수는 581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050건) 대비 37.1% 급증했다. 2011년 한 해 발견된 금융기관 사칭 피싱 사이트 74건에 비해서는 무려 79배에 달했다.

지난해 1~11월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는 1638건으로 전년 동기(2563건) 대비 38.1% 급감했다. 2011년 1774건보다 136건 적은 수준이다.

전체 피싱 사이트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1~11월 국내 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7554건 중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의 비중은 77.0%에 달했다.

/이재형기자 yj4530@

'보험사 정보유출'은 시한폭탄

TM 위해 카드사 고객 DB 공유…영업점 보안 취약도 우려할 점

신용카드 카드정보 유출 파장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을, 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험과 간단한 정기보험 암보험 등을 전화를 통하는 텔레마케팅(TM)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TM을 위해서는 다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하다는 점. 보험사 자체 계약 DB로는 자료 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계약이 시내에서 겹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TM을 위해 양질의 고객 DB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업자료가 바로 카드사 DB다. 카드 회원들은 대부분 직업과 신분이 확실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 자료를 통해 수익을 원하고 양질의 DB가 필요했던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 고객 자료를 공유해왔다.

아직은 보험권의 정보 유출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다.

지난 20일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계열사인 롯데손보와 자료 공유 중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으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는 영업 자료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드 회원과 자동차 소유 여부 및 가입한 보험사와 만기일을 카드현명부에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카드사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보내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가공된 자료를 받는다. 결코 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 경쟁사 보험을 빼앗아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권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공을 거쳐야만 영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통상적으로 영업점에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 의식도 낮다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실적에 얽매이는 영업 모집인들의 입장에서 고객 DB는 훌륭한 재료이자 상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의 DB 거래는 물론 영업소, 설계사 개인들 간 명부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모현기자 · [illegible]@metroseoul.co.kr

정보유출 카드사 전직 경영진들도 징계 조치 받을듯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경영진이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의하면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범위와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곧 심의를 거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경영진과 임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영진들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빨리 검사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제재할 방침"이라며 "사고 당시 재직했던 관련자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상원기자

금소원, 동양 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제기 조남희(왼쪽)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779명, 건수로는 1021건, 청구 액 금액은 201억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이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반 총장' 정보 유통땐 큰일

"전 국민 정보 유출" 소문 사칭 범죄 기승 부릴수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신분의 무차별적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등 최고위층을 사칭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최고위층의 정보도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의 고객에다 카드 결제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의 고객까지 고려하면 국민 모두의 정보가 털렸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금융 당국 측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외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유통되지 않아 2차 피해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이 없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는 추정일 뿐, 추가 유통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일말의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악용하면 대통령, 장·차관, 법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는 "사칭을 통한 경제적 부당이득이 우려된다"며 "유명인 사칭도 문제지만 평범한 이들을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지기자 min/@

market index <21일>

지표	수치	등락
코스피	1963.89	(+10.10)
코스닥	520.59	(+1.00)
금리	2.91	(+0.01)
환율	1047.00	(+3.00)

뉴스 & 뉴스

엔저 상당기간 지속 전망

● 원·엔 환율이 올해 9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당 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달러당 1030원 수준이 예상되고 원·엔 환율은 올해 100엔당 9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달러 강세 압력으로 인해 일본이 통화 완화 정책을 연장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철강·석유·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엔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지난달 신설법인수 급증

● 지난해 12월 신설 법인 수가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2월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신설 법인 수는 6681개로 전달보다 561개가 늘었다.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 7월 7140개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BL기자

수출 '대기업 쏠림' 완화돼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오르면서 대기업 수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은 4.4%로 대기업 0.5%를 크게 웃돌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연간 비중보다 0.6%포인트 큰 수준이다. 반면 수출 상위 5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1년 62.3%에서 2012년 61.1%, 지난해 60.4%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 금융·마케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직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1년 5월 29일 창간/등록번호 서울제등번호(시) 가00006

삼성 갤럭시-美 일리카페 제휴 삼성전자 이영희(왼쪽) 부사장과 일리카페 안드레아 일리 회장이 영국 런던의 일리카페 플래그십 매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리카페 주요 매장에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와 특화된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코스피 "오늘 日 없길…"

일본은행 새해 첫 정책 발표…추가 양적 완화땐 더 센 '엔저 충격'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새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가 22일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존 '돈 풀기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할 만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지난해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표로 구체화됐다. 구로다 총재는 '2년 안에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이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시장에선 '현상 유지'로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변화를 모색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로선 3분기 소비와 성장 흐름을 본 뒤 점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소재용 연구원도 "기존의 유동성 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구로다 총재도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외환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통화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하는 얘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엔저는 다시 힘을 받고,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처드 쿠 노무라리서치인스티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출구전략을 지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에 다다르기 전까지 출구전략을 연기하면 장기금리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이효근 연구원은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는 매달 열리는 만큼 서두를 것 같진 않다"면서도 "소비세 인상 후에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러시아의 산삼 차가버섯 선물세트 2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러시아의 산삼'으로 알려진 차가버섯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차가버섯은 항암 효과는 물론 당뇨, 아토피 등에 효능이 있어 러시아의 비타민고도 불리는 희귀 약용 버섯이다. 1kg에 8만5000원. /연합뉴스

자리잡아가는 코넥스…수급이 문제

벤처·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코넥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다만 수급 불안정 등이 여전히 우려로 제기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방식이 아닌 공모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한 상장사도 나와 공모 성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엘로우에이는 지난 13~14일 22억7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반 청약을 한 결과 32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이 1.42대 1을 기록했다.

상장사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코넥스 시장은 순조롭게 자라 잡고 있다. 정책 당국이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VC) 세제 혜택, 합동 기업설명회(IR) 등을 펼친 결과 코넥스 상장 9개사가 21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증원주로 커나갈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지난 9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발표한 아진엑스텍은 최근 3개월 거래량이 25만9700주로 상위 4위를 기록했고 같은 날 함께 코스닥 상장 1호 사리를 예약한 메디아나는 최근 1주일 거래량·거래 대금이 2만4500주·1억2500만원으로 상위 4위에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들쑥날쑥한 코넥스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해결 과제로 꼽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 시장의 거래 대금은 8200만원으로 전날 2억400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7일 5억6000만원으로 20일 2억4000만원으로 반 토막 나는 등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

/김현정기자 hjkim@

제2벤처 붐? 작년 투자규모 2000년대 최고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벤처펀드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 벤처에 대한 벤처 투자 규모는 1조3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펀드를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규모는 1조5374억원으로 전년 7727억원 대비 9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의 투자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6.7%포인트와 2.1%포인트 증가했다. 문화 콘텐츠 비중은 전년 대비 7.6%포인트 감소했으나 투자업체 수는 같은 기간 5.3% 증가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정보통신 업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반작용으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감소한 3118억원이 투자됐다.

/정윤희기자 unique@

상장사 옥석 가려주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기업들 수익·재무건전성 취약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상장사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재무 건전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440건으로 전년 대비 24.8% 감소했다.

주식 관련 신고서가 130건으로 12.1% 늘었으나 채권 관련 신고서와 합병 관련 신고서가 각각 280건, 30건으로 35.8%, 9.1%씩 줄어들었다.

전체 건수 중 60건(13.6%)에 대해 (9차례)(재정정 요구 포함)의 정정 요구가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평균 정정 요구 횟수는 1.2회며 2회 이상 정정 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7건(1.8%)이었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를 받은 60건에 대해 857개 항목(1건당 평균 12.4개)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회사 위험이 417개로 가장 많았고 사업 위험(177개), 모집 매출 기본 개요에 관한 사항(109개), 기타 위험(71개), 자금 사용 목적(48개) 등이 뒤따랐다.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재무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재무 건전성이 취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6개사로 73.5% 급증했고 당기순손실을 본 기업도 35개사(71.4%)로 위었다. 당기순이익(14개사)을 기록했더라도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면 2.9%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평균인 4.6%, 3.9%를 밑돌았다.

납입 자본금이 전액 잠식(2개사)되거나 부분 자본잠식 상태(12개사)인 회사가 14사였고, 전액자본잠식 기업을 뺀 정정 요구 대상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237.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현재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부채 비율인 83.5%, 7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 위험 요소와 정정신고서의 변경 사항을 충분히 살펴본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분양시장 휩쓰는 '족집게 도사'

삼성물산·반도·호반·롯데건설 4색 성공 마케팅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분양하는 단지마다 훈풍 돌풍을 일으킨 건설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의 경우 될 만한 지역을 선별하고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어 이를 계약으로 이끌어내는 마케팅 능력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성적 A+를 기록한 건설사들의 성공 비법이 화제다.

반도건설은 고객 맞춤형 평면과 교육 특화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소형 4베이 특화 설계를 도입,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이래 수납 특화, 욕실 특화 등 한발 앞서가는 설계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중이다.

특히 작년 동탄2신도시에 분양했던 동탄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 2차에서는 단순한 도서관, 어린이집 수준의 교육 특화에서 진화한 '봉동학습관'으로 강남 못지않은 교육열을 보이는 동탄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1, 2차의 성공에 힘입어 내달 분양 예정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에서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분양 성공에는 마케팅 전략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요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에 힘쓴 것, 여기에 래미안의 브랜드와 앞선 광고 기법이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호반건설은 보수적인 사업 운영으로 분양 선전을 이끌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순천 오천에코신도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방 혁신도시 등 안정적인 택지지구 위주로 공급에 나서는 데다 기존 사업지들의 분양률이 90%를 넘긴 뒤에야 신규 분양에 나서는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롯데건설은 도심을 공략해 이슈가 됐다. 도심의 경우 교통·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잘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구 내 배후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했볕 쥐만 것으로 평가받던 부산에서 1순위 청약에만 2만6144명이 몰리는 저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선옥기자 ·····@metroseoul.co.kr

1인가구 위한 매물 정보 '네이트 부동산'서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가 네이트에 뜬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부동산114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포털 네이트에 부동산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트 부동산은 시세, 매물 정보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및 부동산 상품 시황, 이슈리포트, 인포그래픽스 등 부동산114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네이트의 주요 고객층인 젊은 세대를 겨냥해 앞시기 공동 기획한 1, 2인 가구 섹션.

포털 최초로 선보이는 1, 2인 가구 섹션은 지하철 노선을 기반으로 매물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통근 및 등하교 시 지하철 이용 빈도가 높은 직장인, 학생층의 주거지 결정에 편의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기자 zen@

시간제일자리 도입 기업 고용-국민연금 2년 지원

정부가 시간제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한다. 근로 조건·승어·휴기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SKT '티카' 앱 깔면 내 차도 스마트카 SK텔레콤은 차량을 원격 제어·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티카(T car)'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티카는 차량에 장착된 별도의 모듈과 스마트폰 간 통신을 이용해 원격 시동, 셀프 배터리 충전, 선루프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설연휴 고속도 휴게소서 車점검

현대·기아차 특별서비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고객들의 안전한 설날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날 특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상·하행 각 11개씩 총 22개 휴게소, 기아차는 상·하행 각 8개씩 총 16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귀성길은 29일부터 30일까지, 귀경길은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비스 코너가 운영된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엔진, 배터리, 엔진·미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성능을 점검하고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성 부품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서해안선 화성휴게소, 중앙선 치악휴게소 서비스 코너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디오 점검 및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현대·기아차는 설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운영,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들을 직접 서비스센터 및 인근 서비스 협력사 등에 입고해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적재적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학기자 ferrari5@

올 '2월 분양' 1만4000가구

지난해 같은달의 3배…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

설 연휴 이후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설 전망이다. 내달 2월 분양 물량으로는 2000년대 들어 최대인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적으로 작년 동월(5101가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만4602가구가 분양된다.

서울이 50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2325가구) ▲대구(2075가구) ▲부산(1664가구) ▲충북(1199가구) ▲광주(1096가구) ▲경남(798가구) ▲경북(445가구) 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17배가 늘어난 7325가구가 쏟아진다. 지난해 청약 성적이 우수했던 서울 강남권,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포진됐다.

이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를 재건축 '역삼자이', 도곡동 동신3차를 재건축한 '도곡 한라비발디'가 각각 86가구, 1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 물량 비중이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1.6배 증가한 7277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청약 성적이 가장 높았던 대구에서는 북구 금호지구, 칠곡 금호신도시 서한이다음(977가구)과 달성군 다사읍 대구 세천지구 엘코타운(1096가구)이 공급된다. /박선옥기자

1000억 우습나… 이통사 또 불법 보조금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달도 안돼 90만원대 제품 '0원' 판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 보조금 제재가 약했던 탓일까. 새해 들어 연초부터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12일, 18~19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투입됐다. 실제로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선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95만4800원 이하 출고가), 갤럭시S4 액티브(89만9800원), LG전자 Gx(89만9800원), G2(95만4800원) 등이 할부 원가 0원에 판매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과다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데 대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다만 당초 예정대로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지는 않았다. SK텔레콤과 KT 간 벌점 차이가 크지 않아 한 곳만 주도 사업자로 선정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통 3사는 이 같은 결정을 비웃듯 새해 벽두부터 보조금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6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5만6302건, 12~13일에는 6만6019건 등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평균 2만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과열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주말을 기해 이동통신사를 갈아탄 셈이다.

특히 주말을 노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를 통해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살포를 막기에 방통위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방통위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정책국의 조사요원 숫자가 너무 적다"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편한 일이 벌어진다. 통신사들의 위법적 마케팅도 문제지만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전문성 등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에서도 잇따른 불법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통법에만 매달려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서도 2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논의될 것을 우려, 그 전에 산발성 보조금 투입으로 가입자를 최대한 뺏어오려는 전략인 것 같다"며 "방통위에서도 단통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사진 찍으면서 실시간 공유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주변 친구들과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공유도 가능한 LTE 기반 스마트 카메라 'U+카메라' 앱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123456' 'abcd'… 이런 비밀번호 털려요

특수문자 끼워서 만들고 한글문장 영어자판 등록 살짝만 꼬면 '철통 비번'

"안전하면서도 외우기 쉬운 비밀번호는 없을까?"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속된 숫자 열이나 똑같은 숫자를 사용한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일 비밀번호 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스플래시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비밀번호 1위는 '123456'으로 나타났다. '12345678'(3위), '123456789'(6위), '111111'(7위) 등도 순위에 올랐고 'qwerty'(4위), 'abc123'(5위) 등 연속 문자 열을 사용한 비밀번호도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했다.

이 밖에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암호로는 'password'(2위), 'iloveyou'(9위), 'admin'(12위), 'letmein'(14위), 'monkey'(17위) 등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관리하려면 비밀번호에 영역을 지정해 사이트별로 다르게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happy89'라는 기본 비밀번호를 만들고 메트로신문 사이트에는 'happy89metro', 은행 사이트에는 'happy89bank'라고 하는 식이다.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하나를 넣은 것만으로도 해킹 추가 피해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iamhappy63'라는 비밀번호에서 'happy'를 이모티콘('^^')으로 바꿔주면 된다.

한글 자판만 활용해도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행복하다'를 'sksmsgodqhrgkek'로 쓰는 식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웹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달리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국헌기자

한국 안드로이드 점유율 93% 넘어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세계 8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체제(OS)별 스마트폰 사용자 수와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점유율이 93.4%로 가장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아르헨티나가 82%로 2위에 올랐고 중국(81.8%), 인도(78.4%), 이라크(77.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수 비율은 전 세계 평균(67.5%)과 비교할 때 무려 25.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iOS) 사용자 수 비율은 5.1%로 조사 대상국 중 7번째로 낮다. /이국헌기자

올림푸스·캐논 '공연 기부' 찰칵!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들이 음악 공연을 앞세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펜 시리즈로 유명한 올림푸스한국은 클래식 콘서트를 다음달 6일 서울 삼성동 본사 올림푸스홀에서 개최한다.

인기 여성그룹 2NE1 멤버 박봄의 언니인 첼리스트 박고은과 피아니스트 박진우의 '라흐마니노프 마지막 로맨티시즘'을 주제로 한 올림푸스 앙상블의 공연이다.

올림푸스한국은 문화 사회 공헌 일환으로 국내 클래식계 기대주 7명으로 구성한 올림푸스 앙상블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연티켓 가격은 전석 3만3000원.

작은 DSLR 카메라 '100D'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캐논은 정품 등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 오후 7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리는 '캐논 글라스 하프 콘서트'(사진)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품 등록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캐논코리아 홈페이지(www.canon-ci.co.kr)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총 150명(1인 2매)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캐논은 콘서트 참가비 전액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기부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개안 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화정역 1분 호텔형 힐링하우스

전용률 높고 풀옵션 제공 입주 전 분양 마감 기대

국내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힐링하우스'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힐링하우스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보 1분 거리의 로데오거리 중심에 입지한 싱글하우스다.

로데오거리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CGV, 덕양구청, 정부민원종합청사, 명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있다. 또 화정터미널, 광역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신촌, 을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권인 데다 교통도 좋아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조기 분양 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텔과 차별화된 설계로 전용률을 높였으며 LCD TV, 에어컨, 핫플레이트, 침대, 전자레인지, 빌트인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 제공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사가 에스크로우 제도로 자금 관리를 해 줘 안정성을 더했다.

문의: 1588-5473

무늬만 '모바일 특가'

인터넷 쇼핑몰서 같은 가격에 판매 '소비자 농락'
옥션·GS샵 등 6개 사업자에 37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5월 옥션의 상남자 모바일 특가 이벤트 [1day초특가] [남방/셔츠]체크/청/데님/솔리드 상품을 6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였다. 그러나 이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 제품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등 일부 모바일 쇼핑몰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옥션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특가를 인터넷 쇼핑몰과 차이가 없이 적용해 적발된 업체는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쇼핑몰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 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옥션은 또한 초기 화면에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옥션 모바일 쇼핑몰에서 자주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 A씨는 "옥션 모바일 특가가 인터넷 쇼핑몰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가 옥션 측의 관리 부실인지 사업자들의 규정 위반 때문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션 측은 이날 "(모바일 특가 관련한 오류에 대해) 판매자가 아닌 옥션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모바일 특가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옥션의 모바일 쇼핑몰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편의점 안 파는 게 없네

설맞이 프라모델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편의점 업계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키덜트족을 위한 프라모델 장난감에서부터 가구, 잡수 핸드백·헤드셋, 1인용 가전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제휴 할인 등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물을 장만할 수 있어 좋다.

먼저 CU는 이번 설의 주요 콘셉트를 '저가격 고가치' [Cheapchic] 선물세트로 잡고 차례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일을 혼합한 세트를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1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 '하나 덤' 행사도 168가지 품목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명절 선물 아이템의 경계를 허물고 프라모델·DIY 가구까지 확장해 키덜트족에게 사랑받는 건담 프라모델 시리즈 외에도 '나홀로족'을 겨냥해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의 6단 서랍장(사진 위), 접이식 의자·사이드 테이블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GS25도 지난해 설에 비해 117종이나 늘린 546종의 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천관령 한우와 랍스터·연어 세트, 향수 등 새로운 상품들을 선보이고 전체 상품의 65.8%에 해당하는 상품을 +1 상품으로 기획했다. 비타민, 홍삼, 석류, 흑마늘 상품 등 건강보조식품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해 63종을 출시했다. 여성 고객을 위해 핸드백, 꼬지 16종과 향수 제품도 처음 내놨다. 특히 올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에어워셔와 홈쇼핑 히트상품인 적외선 멀티조리기, 노트북, 커피 메이커 등으로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세븐일레븐은 '알뜰선물족'을 위해 전체 460여 종의 상품의 50%를 5만원 미만 저가 상품들로 구성했다. 블루투스 헤드셋 등 이색 상품과 올해 늘어난 휴일로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여행용 캐리어 9종(아래)도 선보였다. 포장을 줄인 헨켈 세제세트 2종과 다우니세트 2종 외에도 실내 난방용 히터 4종과 저렴용 가습기도 설 선물에 포함됐다.

미니스톱은 총 380여 종목 가운데 특별히 병행수입 명품 잡화로 구찌 여성용 토트 겸 숄더백, 버버리 여성용 숄더백, 페라가모 남성용 벨트 등 24가지 이상의 상품을 준비했다. 쿠쿠 6인용 명품 질정 압력밥솥, LG 전자로봇 청소기 등 고급 가전뿐 아니라 풍년 멀티미니믹서기, 풍년 크라젠 냄비 2종세트 등 중저가 주방용품과 1인 가구 맞춤용 선물세트로 홀리락 1인용 전기밥솥, 가이타이너 L2리터 라면포트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소형 가전도 눈길을 끈다.

/황병철기자

"안심 한우 30% 싸게 드립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135개 전 점포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DNA 검사에 합격한 안심한우를 비롯해 과일, 와인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살찌지 않게 먹으려면 찌세요

다이어트 돕는 찜요리 제품 잇따라 출시

찜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찜기들이 출시되고 있어 주부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찜 요리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음식에 비해 훨씬 건강하면서도 담백해 맛도 좋다. 또 재료가 물이나 불에 직접 닿지 않아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 파괴를 줄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싱글족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의 찜기나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 가능한 찜기, 계란·파스타 전용 찜기 등 다양한 찜기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의 멀티 찜기는 전통적인 대나무 찜기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스마트한 찜기다. 평소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물을 넣고 멀티 찜기를 얹어 간편하게 조리하면 된다.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 찜기는 바닥의 점 홈이 열과 수분을 잘 흡수하도록 해 찜 요리를 더욱 맛있게 해주며 표면에 굴곡이 있어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해준다. 찜기 테두리에는 홈이 있어 물 확인이 용이하고 바닥이 6mm 정도 더 높게 제작돼 음식 위로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찜기 2개가 한 세트이며 여러 개를 쌓으면 여러 찜 요리를 한번에 만들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WMF의 미니 파스타 찜기는 채반 형태의 인서트 냄비가 포함된 파스타 전용 찜기다. 찜기 위에 이중으로 얹혀진 인서트 냄비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 양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리기만 하면 물에서 파스타만 걸러낼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꼬꼬 계란찜기(사진 위)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디자인으로 계란 4개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계란을 찔 수 있다. 완숙을 원하면 12~13분, 반숙일 경우에는 9~10분가량을 돌려주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 만두, 찐빵, 떡, 고구마와 감자 등도 찔 수 있다.

타진냄비(아래)는 물이 부족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지방에서 재료의 수분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르쿠르제에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맞춰 변형해 멀티 타진을 개발했다. 멀티 타진은 중간 부분에 열판을 얹어 만두 등의 다양한 음식을 찌는 용도로 탁월하며 전골 냄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뚜껑의 공간이 높아 음식을 수북이 담을 수 있다. 또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뚜껑의 상부에 닿으면 수분으로 변해 뚜껑 내측을 타고 식재료로 되돌아와 아주 적은 수분으로도 조리를 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안랩 정규직 인턴 뽑는다

국내 대표적인 보안업체 안랩이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안랩은 다음달 4일까지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 글로벌 기술 지원, 웹 개발 등 총 3개 부문에서 인턴사원을 뽑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20여 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력 및 자격, 성별 등 제한은 없으며 2014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외에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지원 분야의 기본 지식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ahnlab.com/company/site/recruit/2014/h_intern.jsp)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e메일(welcome@ahnlab.com)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12일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다음달 17~25일 사이에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안랩 연현진 인사팀장은 "합격자들은 약 6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 전환면접과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보안에 관련한 선경험보다 교육 및 실제 업무 수행을 중점으로 평가를 거쳐이기 때문에 보안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지원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내가 미래의 빌 게이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과학회 엔젠터가 주관하는 '2014 소프트웨어 윈터 캠프'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수료한 초·중등생들이 로봇 프로그래밍, 영인센터 프로그래밍 심화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학생 70% 학자금 대출 경험 휴학 주된 이유는 등록금 부담

대학생이 휴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안 형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1학기 등록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새 학기 등록 예정인 응답자의 66.1%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받는 기관은 '정부'가 9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등록 대신 휴학을 하겠다고 밝힌 대학생의 32.1%는 등록금 마련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휴학 기간은 1년이었다. 학업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로는 '집안이 어려워서'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대출받아 부담돼서'(44.4%), '되도록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22.2%)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응답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횟수는 평균 4회였으며 절반 이상인 57.3%는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학기가 받지 않은 학기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 총액은 평균 1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윤희기자

스펙보다 '포트폴리오 채용'

전망하는 잡코리아 김화수 대표

"앞으로 채용 시장에서 구직자들의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꼼꼼히 정리한 포트폴리오가 구직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말이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않은 구직자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취업 관문을 뚫기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국내 취업 시장을 대표하는 잡코리아의 김화수 대표는 채용 트렌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펙 초월 채용이 조만간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를 예측하고 김 대표는 취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웰던투'(Welldone.to)를 지난 연말 선보였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직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디자인이나 패션 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구직자와 직장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 보다 손쉽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구직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웰던투를 내놨습니다."

◆포트폴리오만 관리해도 채용 의뢰

김 대표의 설명대로 웰던투는 참여했던 과제나 프로젝트, 외부 교육, 시험 수주 등 직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현재 근무 중이거나 관심 있는 업종과 직종을 선택하면 직무 등에서 사용했던 사진, 문서, 메모, 스크랩 게시는 물론 함께 일했던 동료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종·직종 관계자들과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수 있고 인맥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해도 손쉽게 채용 의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관리할 포트폴리오가 많은 경력 10~20년차를 대상으로 웰던투를 기획했는데 현재 20대 대학생 가입자가 20%를 넘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죠. 덕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업에서 뜻밖의 채용 제의를 받는 구직자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가 채용, 경력관리, HRD를 아우르는 '잡코리아2.0'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개념 취업SNS '웰던투' 선봬
평생직장보다 직업 개념 강화
직무 경험과 결과물들 정리해
자신만의 구직열쇠 준비할 때

직무교육 서비스 '나우'도 시작
공부한 과정 이력서 자동 등록

◆고비용 저효율 채용문화 혁신 꿈꿔

김 대표가 예측하는 채용 시장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평생 교육이 화두인 만큼 인적자원관리(HR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러닝 업체 유밥과 손잡고 직무교육 서비스인 '나우(NOW)'도 최근 선보였다.

"나우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기존 교육 사이트와 달리 공부한 내용이 자동으로 잡코리아 이력서에 등록됩니다. 구직자는 보다 편하게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고 기업도 다우를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 셈이죠.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96년 잡코리아를 설립한 이후 가장 큰 변신을 시도한 김 대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내 채용문화 혁신까지 꿈꾸고 있다. 웰던투·나우와 기존 잡코리아를 융합한 '잡코리아 2.0'을 올 하반기에 선보여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채용·취업은 물론 경력 관리, HRD까지 잡코리아 안에서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잡코리아 설립 때부터 유지해온 착한 채용문화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채용·경력 관리·HRD를 온라인으로 모두 제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잡코리아가 유일합니다. 구직자·기업 모두 잡코리아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웰던투에 공유된 잡코리아 직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마다 '다른 회사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지 않을까요."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③

설득의 기술 첫단계는 상대방 성향 분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설득력 있는 말하기는 큰 힘을 지녔다.

이번 회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설득(說得)은 문자 그대로 '말을 해줘서 얻어낸다'란 뜻이다.

설득력 있는 말하기 첫 단계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다.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무슨 성향을 지녔는지를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한다. '나는 논리적인 스타일이니 상대방에게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겠지'란 생각은 금물이다. 상대방이 감성적인 성향인지, 자기주장이 강한지, 과시욕이 높은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언변을 구사해야 한다.

상대방을 분석했다면 이익을 제시할 차례다.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매력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는 대가 없이 부탁만 한다면 설득은 난항을 겪기 쉽다. 이익은 경제적 요소와 심리적 만족 등을 두루 포괄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W스피치에서 수강생들과 설득하는 말하기를 연습해봤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공모전 참여로 수업에 빠져야 하는 상황일 때 '출석은 직접 못 해도 리포트로 보완하겠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식으로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다. 자기용을 바꾸고 싶을 경우 '신차로 바꾸면 당장 돈은 들어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를 아낄 수 있다'고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설득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을 열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설득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므로 주고받는 대화가 중요함을 상기해야 한다. 이때 말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복잡한 문제는 단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단꺼번에 거대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낀다. 처음에 거절당할 경우를 예상하고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등으로 쪼개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다. /unique@

치약이 입냄새 만든다?

합성 계면활성제 성분이 점액 건조시켜 구취 유발 최근 천연성분 치약 인기

주부 최영미(36)씨는 치약 성분 중 하나인 계면활성제가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로 치약을 바꿨다. 평소에는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선호했지만, 아이들은 심각해서 거품이 잘 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천연 계면활성제 함유 치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중이다.

치약에 함유된 합성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도와 세정력에 뛰어나고, 양치질을 할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구강 내에 강한 자극을 줘 심한 경우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고, 양치 후 치약을 완전히 헹궈내지 않으면 입안에 남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점액을 건조시켜 구취의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 같은 합성 계면활성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치약 시장에서 '무합성 계면활성제' 함유 치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 마케팅팀 김영태 팀장은 "웰빙 트렌드를 타고 특히 관심을 끄는 천연 계면활성제 치약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시중에는 천연 계면활성제 치약이 다양하게 나와있다.

코리아나 웰빙라이프에서는 천연 계면활성제와 키토산 성분을 담은 '키토클링 치약'을 선보였다. 키토산은 유해물을 흡착·배출해 치석의 원인인 치태를 제거하고 충치·풍치·잇몸질환 예방에 탁월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킨큐어의 '퓨어덴탈치약'은 레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불소·합성 계면활성제·인공 향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타민 C가 풍부해 치아·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살균 및 수렴 효과도 있어 독감기에 효과적이다. 클레어스의 '블랑시크릿미망'은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양치 시 구토감을 완화해주며 유기농 카렌듈라·유칼립투스 등이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천연과일의 맛 풍부한 스카이 보드카 인퓨전

스카이(SKYY) 보드카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내 디어르 가니어르 바에서 체리·애플·코코넛·모스카토·배 천연과일을 함유한 스카이 보드카 인퓨전(INFUSIONS) 3종 출시 행사를 가졌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천연 과일을 사용해 풍부하고 신선한 과일 맛을 맛볼 수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낮다. 750㎖ 병당 3만9000원.

문어랑 치킨이랑 첫 만남

낙지 설렁탕·찹쌀떡 든 우동…이색 맛 궁합 눈길

겨울을 맞아 프랜차이즈 외식업계가 겨울철을 맞아 기본 음식에 입맛을 맞은 대판 이색 메뉴를 잇따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의 설렁탕 브랜드 '맑은 설렁탕 담다'에서는 최근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낙지 설렁탕'을 선보여 미식가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담백한 국물 맛의 '맑은 낙지 설렁탕'과 얼큰한 '낙지 얼큰 설렁탕' 2가지로 영양가도 풍부하고 신선한 낙지를 맘껏 즐길 수 있다.

우동은 무엇보다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 이가종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사보텐은 우동과 색다른 재료의 조합을 이룬 '베스트 우동 메뉴' 5종을 선보였다. 타누키 우동은 담백한 가츠오 국물에 타누키(튀김 부스러기)를 가미해 고소한 맛을 냈다.

지카라 우동은 기본 타누키 우동에 찹쌀떡을 추가해 부드럽고 쫄깃함을 더했다. 명란 크림우동은 고소한 크림소스와 명란이 어우러진 퓨전 메뉴로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이색 메뉴다.

프랜차이즈 죽전문점 '죽이야기'는 오랜 기획 끝에 '낙지 김치죽'이라는 이색적인 메뉴를 선보였다. 쫄깃한 낙지와 매콤한 김치의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와 쫄깃한 낙지의 식감이 좋아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예스원푸드에서 출시한 '계로 봐여 치킨' 이식 메뉴 중에서도 착한 문어 치킨'은 이름처럼 치킨과 문어를 동시에 맛볼 수 있어 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닭은 섭씨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해 일반 치킨보다 칼로리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쫄깃한 문어는 닭과 최상의 하모니를 자랑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영일기자

뉴스 & 뉴스

아리가또 맘마 20% 이벤트

●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 아리가또 맘마는 '설맞이 2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아리가또 맘마 전 매장에서 진행되며, 지점 위치는 아리가또 맘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설 연휴(29일~2월 2일) 동안 사용한 열차표, 고속버스표 등 대중교통 티켓을 매장에서 제시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5억원 기부

● 아모레퍼시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4 나눔캠페인'에 5억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기탁한 성금은 여성 가장 자립 지원을 위한 '뷰티풀 라이프' 사업에 사용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째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기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여성 가장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제주항공 '1등 저비용 항공사'로 훨훨

25일 창립 9주년 맞이해 "누적 탑승객 2000만 명 매출 5300억 달성 눈앞"

오는 25일 창립 9주년을 맞는 제주항공이 '대한민국 넘버원 저비용항공사(LCC)'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제주항공은 먼저 지금까지 보여준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국내 LCC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탑승객 2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올해 7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총 17대의 기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제주항공은 올해 연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해 '대한민국 3대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취항 및 증편 등 시장 확대를 통해 지난해 잠정 매출액(432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많은 53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LCC 가운데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실현한 제주항공은 '선도적 LCC로서 비즈니스 모델 정체성 강화'를 전략 목표로 정했으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 지속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은 "행복한 기업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이다. 이제 중견 항공사로서 내부 고객의 자부심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개원기자

라미드호텔전문학교, HTC와 협력 계약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호텔 특성화 전문학교인 라미드호텔전문학교가 국내 최대 호텔 위탁 운영사인 HTC와 취업 계약을 체결했다.

HTC와의 협력사 체결로 라미드호텔전문학교는 25개의 계열사 및 협력사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호텔 실습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라미드 서울 호텔에서는 2014 라미드호텔전문학교 신입생 예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현재 라미드호텔전문학교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mid.ac.kr)나 입학 상담실(02-2051-0044 004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재승기자

일본 '모발 클리닉 리브21' 한국시장 진출

일본 탈모관리 기업인 '모발 클리닉 리브21'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역 오퍼레이션 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리브21은 재팔교포 노승정 대표가 1976년 창립한 회사로 현미경을 사용한 두피·모근 검사를 통해 탈모의 원인을 찾고 두피 시술로 고객들의 탈모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또 현재 일본 전역에 90여 개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리브21은 국내에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약 10개의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며 한국 진출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승정 대표는 "리브21은 압도적인 점유율과 실적으로 일본 시장 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0년 이상에 걸쳐 쌓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개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일본 본사에서 연수를 받은 한국인 스태프들을 개지해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휘닉스파크 S시즌권 취향따라 즐겨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쓰일 보광 휘닉스파크는 다음달 2일까지 '휘닉스파크 S시즌권'을 특별 판매한다.

시즌권은 총 6종으로 기존 휘닉스파크 시즌권에 ▲객실 1박 무료 혜택이 추가된 A타입 ▲렌탈 무료 혜택이 포함된 B타입 ▲소인 시즌권이 포함된 C타입 ▲장비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는 D타입 ▲시즌권만 구매하는 E타입 등이 있다. A, B, C, D타입의 경우는 30만원이며 E타입은 25만원이다.

이와 함께 타 스키장에서 2013~2014년 시즌을 즐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 스키장 시즌권에 대한 보상 판매도 진행된다.

시즌권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또는 시즌권 데스크(서울 휘닉스파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대의료원 검진·암치료 시스템 中 수출

이화여대 의료원이 병원의 건강검진 및 암 치료 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한다.

의료원은 최근 중국 허난성 정주시에서 20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153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료원의 건강검진·암센터 시스템을 153병원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원은 153병원이 건강검진·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등 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게 된다. 또 의료원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원 호율적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양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153병원과의 협력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의료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풀무원 '주부모니터' 모집

풀무원식품은 '41기 주부모니터'를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풀무원 제품과 바른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서울·경기도 거주 만 25~45세의 직장인 주부다. 단 응모자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 및 다른 식품회사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풀무원 홈페이지(www.pulmuone.co.kr) 내 '사이버 홍보실'에서 지원 서류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담당자 e메일(shchoi@pulmuone.com)로 보내면 된다.

보령수앤수 '슬림워크' 출시

보령제약그룹 계열사 보령수앤수가 일본 드러그스토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압박스타킹 '슬림워크'를 출시했다.

슬림워크는 발목·종아리·허벅지 부위별로 단계 압박을 주는 미각 리프트 구조의 압박스타킹으로 다리 라인을 살려준다. 일반 팬티형뿐 아니라 발등 타이츠, 레깅스 스타일도 나와있다.

남 시선보다 '뼈 아픈' 꽈당

노년층·하이힐 여성 빙판길 낙상 주의보

겨울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특히 눈이 내린 후 아침 출근길은 언 노면과 눈으로 인해 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3~4명 중 1명 낙상 경험

겨울철 미끄러져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노인과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3~4명 중 1명(28~35%)이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령일수록 낙상을 당하는 노인이 많아진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낙상의 원인은 노화로 인해 신체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체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근력이 떨어지고 비틀어진 신체를 바로잡는 반사작용이 느려진다. 더욱이 보행능력 장애, 균형감각 저하, 인지기능 장애, 허제 부실 등도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하이힐이 원인이 되는데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경우도 신체가 불안정하고 반사작용이 평소보다 느려져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런 낙상은 손목이나 발목 골절, 엉덩이 골절, 다리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

◆넘어지는 순간 손목 노출 조심

특히 넘어질 경우 가장 먼저 골절이 될 수 있는 손목 노뼈 하단 골절을 조심해야 한다. 노뼈는 팔꿈치 아래 바깥쪽 뼈로 만약 넘어진 후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고 붓기가 심해지며 손목 주위에 붉은 멍이 들었을 경우에는 노뼈 하단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또 낙상을 당한 후 넘어진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도현우 용인분당예스병원 원장은 "손목 노뼈 골절은 흔히 땅을 잘못 짚어 넘어질 때 발생한다. 금속을 고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수술 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치가 가능해도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항상 빙판길을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속혜미기자 hmo@metroseoul.co.kr

한독테바 '새해 소망 벽화 그리기' 행사 한독테바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소감을 담은 '벽화 그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한독테바의 기업 가치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새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화 디자인은 한독테바의 기업 슬로건인 '세계인의 신뢰, 한국인의 선택(We Bring Global Values for Health of Korea)'을 모티브로 해 제작됐다. /한독테바 제공

'말벅지 체조'로 빈약한 하체 탈출!

직장인의 건강 체조법 비타민트 개발해 공개

메디카코리아의 비타민트(VITAMINT)가 매끈한 몸매로 관리하고 싶지만 바쁜 업무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탄력 있고 튼튼한 하체 라인을 만들어주는 비타민트 건강 체조의 '말벅지 체조'를 공개해 화제다.

이 체조는 탄력 있고 튼튼한 엉덩이와 하체 라인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동작으로 구성됐다.

이 체조는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허리를 잡아 반듯하게 선 다음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살포시 앉았다가 일어난다. 그다음 다리를 후방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 앞 다리 쪽 엉덩이에 자극을 느낀 후 원위치로 돌아오며 반대 방향도 실시하면 하나의 동작이 완성된다. 이렇게 10회씩 3세트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이 동작의 반복 횟수를 늘여 실시한다면 더욱 매끈한 말벅지로 가꾸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비타민트 마케팅 담당자는 "말벅지 체조는 탄력 있는 하체 라인을 만들고 싶지만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고 불규칙한 식사와 각종 회식 등이 많아 하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에게 제격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조이니 틈틈이 체조를 해주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눈길을 끄는 각선미 만들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타민트(VITAMINT) 건강체조는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유명한 숀리엔스트롱 조승우 대표와 손을 잡고 비타민트를 모티브로 해 만든 체조로 페이스북과 숀리엔스트롱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홍일기자

와! 한국사·세계사 한번에 쏙쏙 이해

왼쪽엔 세계사 오른쪽엔 우리 역사 나란히 기술
암기 급급했던 시대 흐름 종합적 이미지화 도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20만여 명의 군대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후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왜군의 침공은 계속됐다. 이 당시 서양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한창이었다. 위그노 전쟁(1562~92년)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전쟁으로 낭트 칙령이 앙리 4세에 의해 발표되면서 개신교도와 로마 가톨릭교도 간의 종교 분쟁은 종식됐다.

한국사를 알면 세계사가 보인다는 이처럼 세계사와 한국사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역사 교과서다.

지난 36년간 '안나라 이웃나라 '가로세로 세계사' 등으로 역사 교육 운동에 앞장서왔던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교수가 감수하고, 덕성여대 시각디자인과 감승민 교수가 글과 그림을 그렸다.

한국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한 나라에서 발생된 문명이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주변 국가들의 문화에 흡수돼 독특한 문명을 이루기도 한다.

위대한 탐험가에 의해서도, 오랜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의 역사는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며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 때문에 자국의 역사만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계사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역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사와 한국사를 따로 공부하는 기존 역사 교육에서는 세계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웠다.

한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는 이런 한계를 단번에 극복했다. 왼쪽 페이지에는 세계사, 오른쪽 페이지에는 한국사를 게재해 비슷한 시기에 세계와 한국에서는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비교하며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한국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외우지 않고는 도무지 머릿속에 넣지 못했던 세계사와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연도대로 외우지 않고도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원복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이 유럽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항상 세계사와 한국사를 따로 가르쳐왔다"며 "하지만 지구촌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지금 더 이상 세계와 분리된 대한민국은 없고, 이제는 '세계의 우리'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한국사를 알면 세계사가 보인다 감승민 글 그림/김영사

특 속 한 컷 정열도 쉬어가는 시간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남들이 한창 일할 시간에 낮잠을 잔다. 오후 [illegible] 부부의 개인 상점들이 시에스타 를 갖는데 시에스타는 스페인어로 '낮잠' '한낮의 휴식'을 뜻한다. 이 시간에 거리는 인적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 시에스타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일 년 내내 있다. 낮잠을 자거나 느긋하게 점심을 즐기거나 그냥 쉬거나, 특히 한여름엔 더위에 대적하는 것보다 한 발 물러나는 게 상책이다. - 스페인(김은희/상상플랜) 중 -

/박지원기자

새로 나온 책

소설
위험한 패밀리
토니노 베나퀴스타/단숨사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전직 마피아 브레드와 가족. 복수를 위해 마피아가 그들을 찾아오면서 이어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2일 개봉하는 동명 영화의 원작 소설이기도 한 책은 프레드의 가족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인문
생각
이상수/책읽는수요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마광수라는 이유에 걸맞게 지지는 대담하면서도 솔직한 문장을 통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풀어낸다.

침묵, 삶을 바꾸다 그레첸 미나/봄대첩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침묵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침묵의 진정한 가치를 만날 수 있다.

흔들리는 내혼을 위한 청춘의 인문학
안상헌/북포스

취업, 사랑, 적성, 친구 등 주제에 관계없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문학의 핵심이자 문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역사
북유럽 이야기 김민주/미래의창

저자는 바이킹, 뭉크, 말괄량이 삐삐, 레고, 앵그리버드, 노키아 등 익숙한 키워드를 통해 북유럽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짚어내고 있다. 책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브랜드와 제도가 탄생한 북유럽으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계발
잡담이 능력이다
사이토 다카시/위즈덤하우스

잡담, 쓸데없이 주고받는 말 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잠시 상대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는 잡담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인간성과 사회성이 응축돼 나타나는 잡담력은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정치/사회
편의점 사회학 전상인/민음사

1989년 세븐일레븐이 처음 문을 열며 시작된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점포가 아닌 복합적인 생활거점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책은 이처럼 생활의 중심, 생활의 도구, 생활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는 편의점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에게 충실해야 후회없는 인생

화제의 책

초역 니체의 말 Ⅱ
프리드리히 니체/삼호미디어

독일 철학자의 통찰력으로 독자의 내면 예리하게 자극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

책은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출간된 후 120만 부라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한 '초역 니체의 말'의 두 번째 이야기로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내면과 감성을 예리하게 자극한다.

그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라'라는 기본 개략 이래 '삶의 창조' '고난의 수용' '늙은 것에 대한 회자' 등을 책 속에 자연스럽게 틀어넣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오직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나갈 것을 끊임없이 독려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들어왔을 조언과 충고지만 그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솔직하고 거침 없이 알려준다. 그리고 그만의 방법으로 우리 가슴에 세상을 살아갈 단단한 용기를 심어준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책은 인간을 위한 생의 철학으로 세상을 매혹시킨 위대한 철학자의 외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예리하게 핵심을 파고드는 현실 인식과 특유의 자유분방한 문체로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니체. 그의 진면목을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illegible]

metro entertainment

AOA의 초아 민아 혜정 설현 유나 지민 찬미(왼쪽부터)가 과감한 노출 의상으로 섹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 제공

"더 깊어진 섹시미에 반할걸요"

'짧은 치마'로 돌아온 AOA

지난해 10월 '흔들려'로 섹시 걸그룹 대열에 합류한 AOA가 한층 성숙해졌다. 신곡 '짧은 치마'를 들고 돌아온 이들은 노래 제목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하며 검은 스타킹과 지퍼가 달린 의상과 의자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가요계를 달구고 있다. 섹시 콘셉트라는 점은 걸스데이와 달샤벳, 레인보우 블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퍼포먼스와 음악성 만큼은 달랐다. 올해 데뷔 3년차를 맞은 AOA는 "'짧은 치마'로 좀 더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차별화된 섹시함 보여주고파

2013년 10월 네 번째 싱글앨범 '레드 모션' 활동 이후 3개월 만의 컴백이다. 16일 발표한 다섯 번째 싱글앨범 '짧은 치마'는 파워풀한 섹시미가 돋보였던 '레드 모션'에 이어 한층 깊어진 성숙함으로 무장했다. AOA와 용감한 형제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다.

혜정은 "'흔들려' 때는 군무로 그룹 전체의 매력을 보여드렸다면 '짧은 치마'에선 멤버 각자의 파트가 늘어났다. 노래가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곡이지만 쉴 없이 펼쳐지는 안무에서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아는 "'짧은 치마'는 힙합을 베이스로 흥겨우면서도 끈적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이라며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최고로 강렬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멤버 설현의 부상으로 6인 체제로 컴백한 것에 아쉬움도 남는다. 혜정은 "설현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7명의 각기 다른 섹시함을 준비했었는데 아쉽다"며 "마지막 무대는 함께하고 싶다. AOA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쾌하고 끈적한 타이틀곡
검정 스타킹 신고 '지퍼춤'
멤버 일곱빛깔 매력 발산

◆음악만큼은 포기 못 해

올해로 데뷔 3년차인 AOA는 처음부터 섹시함을 표방하진 않았다. 지난해에는 같은 소속사 선배인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처럼 밴드 형태의 유닛 AOA 블랙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선보였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생각만큼 좋지 못했다.

유나는 "사실 데뷔 후 성적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흔들려'로 활동할 때 반응이 가장 좋았다"며 "'흔들려' 덕분에 군대에서 얼굴 알리기에 성공해서 참 좋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나 음악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AOA 유닛으로 결성된 AOA 블랙 멤버들은 '짧은 치마'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유닛 멤버들을 비롯한 AOA 멤버들은 앨범 준비 중에 틈틈이 악기 연습을 하며 음악성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예능·뮤지컬 등 두루 섭렵
멀티플레이어 가수가 목표
올해 신인상 받고 싶어요

특히 이번 앨범에 수록된 '가로등 불 아래서'는 '짧은 치마'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곡이다.

민아는 "'가로등 불 아래서'는 '짧은 치마'보다는 조금 더 느린 미디엄 템포의 빈티지한 힙합 베이스의 곡"이라며 "타이틀곡 못지않게 중독성 있는 훅이 귀에 착 감기는 노래다. 또 '고너 겟 유어 하트'는 인트로에 해당하는 짧은 곡이고 메인 보컬 초아의 호소력 짙은 음색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못 이룬 꿈 올해는 꼭 이루고파

AOA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과 뮤지컬, 연기까지 두루 섭렵하는 '멀티플레이어' 가수가 목표다. 혜정은 KBS2 드라마 '칼과 꽃'에 출연했고, 민아는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 김희선 아역으로 캐스팅됐다. 또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에서 예능에 도전하기도 했다.

찬미는 "노래와 연기,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특히 송은이 선배님과 같은 소속사에 있는데 선배에게 틈틈이 예능에 대해 배우고 있다. 선배는 우리가 너무 얌전하다며 '좀 세우기도 하며 지내라'고 하실 정도다. 우리에겐 예능 스승님이다"고 말했다.

이미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OA지만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신인상과 음악 프로그램 1위다. 초아는 "제도가 바뀌어서 데뷔 이듬해까지 신인상 후보로 오를 수 있다. 올해로 데뷔 3년차인데 꼭 신인상을 받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위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숙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이은지

빅스타 컴백대전 설렌다

내달 이선희 귀환 이어 싸이도 복귀설…아이돌 그룹도 몰려와

올 상반기 가요계는 아이돌과 솔로 가수들의 연이은 컴백으로 전성터를 방불케 한다.

1월에는 '한류 듀오' 동방신기를 비롯해 써니힐 걸스데이 달샤벳 AOA 레인보우 블랙 등이 섹시 콘셉트로 가요계를 달궜다. 2월 가요계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가수 이선희(사진 왼쪽)를 비롯해 싸이 소녀시대 등 전설적인 가수들의 컴백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 아이돌 화려한 컴백

나음달 그룹 B.A.P(오른쪽)와 방탄소년단·블락비가 나란히 신곡을 발표한다. 가장 먼저 B.A.P가 컴백을 선언했다. 다음달 3일 첫 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를 발표하는 B.A.P는 타이틀곡 제목 '1004'까지 공개하며 컴백 조워기에 들어갔다. 이번 앨범에서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다음달 12일 미니앨범 '스쿨 러브 어페어'로 컴백한다. '학교에서의 연애'란 뜻을 지닌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10대의 사랑 이야기가 앨범의 주제다. 지난해 발표한 '노 모어 드림'과 '엔오'에서 들려준 꿈과 행복에 이어 이번에는 사랑으로 10대들의 생각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다.

블락비도 2월 중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소녀시대도 다음달 발표를 목적으로 앨범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열린 제28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곧 컴백할 테니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달라"고 말해 컴백을 예고했다.

◆ 전설들의 귀환

베테랑 가수들의 컴백도 지열하다. 이선희가 다음달 중 컴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 그가 지난해 가왕 조용필이 불러일으켰던 중견가수 열풍을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 스타 싸이의 2월 컴백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인증샷까지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그는 제28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신곡이 마무리됐다. 신나는 노래로 재미있는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해 컴백을 가시화했다.

여성 로커 소찬휘도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한다. 7인 출대 인근의 한 재즈클럽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며 새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룹 신화의 이민우도 M (엠)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yse@metroseoul.co.kr

코요태 "복고란 이런 것 보여주마"

미니앨범 '1999' 발표

혼성 그룹 코요태(김종민 신지 빽가)가 데뷔 17주년 미니앨범 '1999'로 돌아왔다.

코요태는 1998년 데뷔곡 '순정'을 시작으로 미련 '빙고' 등의 댄스곡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 17년차인 이들은 '1999' 앨범을 발표하며 가요프로그램 순위보다 더 큰 가치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신지는 "앨범을 발표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욕심보다 코요태가 가수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김종민을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다.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 1999년인데 그것을 재현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미니앨범 '1999'의 타이틀곡 '1999'는 1990년대를 아우던 흥겨운 댄스 장르 코요태의 음악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유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유쾌한 사운드와 신나는 가사가 어우러졌다. 앨범 타이틀에 따라 의상 스타일도 1999년도를 재현한다. 신지가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끼고 김종민은 앞머리를 풍성하게 부풀렸으며 빽가는 당시 유행한 털모자를 착용했다.

반면 오랜 기간 장수할 수 있는 비결과 관련해 김종민은 "코요태는 보컬이 가장 중요한 팀"이라면서 "신지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지는 "멤버들이 서로의 자리를 지켰다"면서 "종민 오빠는 예능에서 고생했고 빽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코요태를 알렸다"고 답했다.

한편 코요태는 22일 음원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정병운기자

데뷔 17주년 기념 미니앨범 '1999'를 발표한 그룹 코요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드래곤 '삐딱하게' 2013년 올해의 곡

美 MTV 선정…번지가린 '디퍼런틀로지' 2위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사진)의 솔로곡 '삐딱하게'가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MTV 이기(IGGY)가 선정한 '2013년 올해의 곡'으로 뽑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21일 "지난해 12월 13~20일 일주일간 전 세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TV 이기의 투표에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47.7%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번지가린의 '디퍼런틀로지'(47.68%)가 차지했다.

MTV 이기 측은 "지드래곤은 솔로 앨범 '쿠데타'로 K-팝을 휩쓸었다"며 "수록곡인 '삐딱하게'는 앞으로도 질림없이 재생될 노래다. 우리는 2012년에 이미 지드래곤이 굉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빅뱅은 24~2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4 빅뱅 플러스 알파 인 서울'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현기자

가인 '진실 혹은 대담' 들고 출격

가수 가인(사진)이 6일 세 번째 미니앨범 '진실 혹은 대담'으로 전격 컴백한다.

2012년 10월 발표한 앨범 '토크 어바웃 S' 타이틀곡 '피어나'로 여성 솔로로서 자리를 굳혔던 가인은 1년4개월 만에 컴백을 예고하며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된 티저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시선들에 담긴 모습이 아닌 카메라 안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 가인의 진실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앨범은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타이틀로 여자 가수로서 혹은 한 여자로서 가인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이나 소문들, 그리고 가인 자신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다. 팝·발라드·일렉트로닉·펑키팝 등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음악들이 수록됐다.

가인은 27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앨범 수록곡을 선공개하며 컴백 조워기에 들어간다.

/김성현기자

엠씨더맥스 '그대가 분다' 전국투어

그룹 엠씨더맥스(사진)가 1일 발매된 7집 앨범 '언베일링'의 음원 열풍을 공연 열기로 이어간다.

21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엠씨더맥스는 부산·대구·서울 등에서 7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그대가 분다'를 열어 팬들과 만난다.

앞서 이들은 '언베일링'의 타이틀곡 '그대가 분다'로 각종 음원 차트 정상 및 음악 프로그램 1위 후보에 올라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엠씨더맥스의 7집 앨범에 보내주신 팬들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탄탄한 연주와 뛰어난 라이브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대가 분다' 서울 공연 티켓 예매는 24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시작된다.

/김성현기자

가족·자극적 코드로 시청자 들었다 놨다

Issue&View
'왕가네' 문영남 작가 흥행법칙

/[illegible]기자

문영남 작가(작은 사진)가 집필한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시청률 50%를 넘보고 있다.

첫 방송부터 줄곧 전체 시청률 1위를 유지했던 이 드라마는 19일 방송에서는 43.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며 '흥행 보증 수표' 문영남의 이름값을 재확인시켰다.

이 드라마는 '장밋빛 인생'(2005) '소문난 칠공주'(2006) '조강지처 클럽'(2008) 등 문 작가의 전작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욕하면서 본다'는 말처럼 시청률은 계속 치솟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초반엔 과도한 자식 편애, 불륜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극을 자극적으로 몰고 갔다. 지금은 각각의 문제적 캐릭터들이 풀어가며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중이다.

예로 돈 없는 사위를 박대했던 이앙금(김해숙)은 누구보다 따뜻한 장모가 됐고, 왕가네 둘째 사위 허세달(오만석)은 조강지처를 나두고 바람을 피웠다가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후 새 사람이 됐다. 현재는 왕가네 첫째 딸 왕수박(오현경)이 사업이 망한 남편 고민중(조성하)을 무시하고 바람까지 피운 대가를 톡톡하게 받고 있다.

이 같은 전개는 보수적이지만 서민적인 드라마를 집필하는 작가로 유명한 문 작가가 전작들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이다.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캐릭터 이름을 짓고, 가족의 틀 안에서 자극과 해소가 반복되는 구성을 취해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이다.

문화평론가 정덕현씨는 "주말극 시청자 층은 보수적인 40~70대다. 문 작가는 가족 간에 여러 갈등이 벌어지지만 결국 봉합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보수적인 가치로 드러내면서도 자극적으로 뽑아내는 재간이 있다"면서 "구제 불능 인물을 만들고 가족이 고통받는 상황을 그린다. 그 뒤 여러 구제 불능 인물이 스스로 망가지거나 망하거나 하는 상황을 들어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준다"고 문 작가 작품의 흥행 법칙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 작가의 이런 수법은 여전히 시청자들에게는 물론 평단에서도 논란거리인 것이 사실이다. 정 평론가는 "이런 수법은 퇴행적이라고 본다. 문 작가는 마지막 보루처럼 남아있는 보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데, 현재 정상적인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족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카사노바' 이종석 '일진' 박보영 맛깔나는 연기 변신 눈에 띄네

film review

/김종훈기자

■피끓는 청춘

22일 개봉될 영화 '피끓는 청춘'은 1980년대 충청도의 농촌을 배경으로 소년 카사노바 중길(이종석·사진 오른쪽), 중길을 짝사랑하는 여자 '일진' 영숙(박보영·왼쪽), 청순가련한 전학생 소희(이세영), 홍성공고 '싸움짱' 광식(김영광)이 뒤엉키면서 벌어지는 청춘의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철없던 소년 중길이 진짜 사랑을 알아가며 남자가 된다는 뻔한 성장기를 그린 하이틴물인데,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풍경과 청춘스타 이종석과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순수한 매력을 뽐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종석이 여학생들을 꾀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가도 '싸움짱'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지질하고 코믹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촌스러운 '몸빼' 나팔바지를 입은 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능청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흰색 팬티만 입고 막춤을 추는 등 망가지는 연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스타덤에 오른 후 영화 '관상' '노브레싱'을 선보이면서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친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 '늑대소년'으로 청순한 이미지가 강했던 박보영은 여자 일진을 표현하기 위해 연기에 힘을 주면서도 짝사랑하는 중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안정적으로 연기했다.

이 밖에 나팔바지와 교복뿐 아니라 그 시절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통학열차, 단골 데이트 장소로 애용되던 빵집 등의 장소와 플라스케이트, 벽가이버 칼 등의 소품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다만 코믹과 감동 코드를 버무린 많은 한국 영화의 끝이 그렇듯 이 작품 역시 인물의 감정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못하고 개연성이 부족한 채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대목이다.

장근석 "적어도 1년에 한 작품씩"

"한류스타 안주하지 않을것"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사진)이 "한류스타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20일 오후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그는 "한류스타 타이틀을 갖게 되면 작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는 국내에서 배우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에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한 작품씩은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종영한 KBS2 '예쁜 남자'에 출연한 것도 그런 자신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편성이 11월로 갑자기 결정되면서 같은 달 예정됐던 해외 콘서트를 2월로 연기해야 했다. 이 일로 인해 대관비 등을 물어줘야 해 손해가 컸지만 출연하고 싶었다"고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예쁜 남자'가 SBS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와 대결해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어쉬워하지 않았다. 극중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남자 독고마테를 연기한 장근석은 "10명의 여자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캐릭터가 신선했다. 만약 출연 제의를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근석은 당분간 다음달 열릴 일본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해외 활동에 주력한 뒤 차기작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거장 지휘자 그라프가 빚어낸 '말러 교향곡 10번'

서울시향 내일 예술의전당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스 그라프의 말러 교향곡 10번' 하나 클래식 시리즈 1'을 연다.

서울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영국의 음악학자 데릭 쿡의 '연주희용 버전'으로 완성된 구스타프 말러의 미완성 작품 '교향곡 10번'을 휴스턴 심포니의 명예지휘자를 맡고 있는 한스 그라프의 지휘 아래 연주한다.

이 곡은 '백조의 노래'로 남은 미완의 곡이다. 말러가 부인 알마 말러의 외도에 힘들어하며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곡은 1910년 여름에 작곡됐으나 1911년 5월 18일 사망하기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2010년 제임스 드프리스트의 지휘로 이 곡을 국내 초연해 극찬을 받았던 서울시향은 이번 무대에선 뛰어난 통찰력과 탁월한 해석력을 지닌 경륜의 거장 그라프의 지휘로 다시 선보인다.

한스 그라프, 스베틀린 루세브(왼쪽부터)

서울시향 제공

그라프는 2012년 서울시향과 키마유 생상스 '오르간 교향곡'을 선보인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휴스턴 심포니를 이끈 후 현재 동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를 맡고 있다.

서울시향은 공연에서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협주곡이라 일컬어지는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드 '바이올린 협주곡'도 서울시향 악장이자 뛰어난 솔로이스트인 스베틀린 루세브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루세브는 레온 플레이셔·예후디 메뉴인·정명훈·마레크 야노프스키 등과 호흡을 맞췄으며, 스승인 장자크 칸토로프 후임으로 모교인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의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문의 1588-1210 /[illegible]기자

metrosports

"선수 컨디션 90%…이젠 압박 축구 정복"

홍명보호 브라질 전훈 마치고 미국 이동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위한 최종 구상을 마쳤다.

홍 감독은 브라질 전훈 마지막 날인 20일 브라질 포스두 이구아수시의 버번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새 선수 점검 측면에서 1주일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선수들의 몸 상태가 90% 이상 올라왔다. 몸이 무거웠고 날씨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줬다"면서 활짝 웃었다.

시즌이 끝난 K리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1주일 전만 해도 기본기 훈련에서 패스가 자주 끊기는 등 '태극전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했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홍 감독은 선수 23명을 이끌고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홍 감독은 공 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괴롭히는 축구를 완성할 계획이다. 운동량이 많은 태극전사의 장점을 극대화한 강한 압박과 두터운 수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감독은 "공간을 좁게 만들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축구를 본선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에 개인 전술 능력은 높이고 관록의 선수를 기용할 방침이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몇 계단 수준이 높은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하고 돌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추' 역할을 할 노장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지훈련 뒤 영

홍명보 감독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대표팀 전지훈련지인 브라질 파라나주 포스두 이구아수시의 아비사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만 캡틴' 박지성(PSV 에인트호번)과 만나 복귀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유럽파 선수들이 포진한 2선 공격진에는 "이미 검증이 됐다"며 일단 합격점을 줬다.

한편 대표팀은 26일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멕시코(30일) 미국(2월 2일)과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김민준기자 yoo@metroseoul.co.kr

이라크 잡고 자존심 세운다

이광종호 내일 4강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출항한 이광종호가 이라크를 제물 삼아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 결승을 노린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오후 10시 오만 무스카트의 시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이라크와 4강전을 펼친다. 한국은 이라크를 제압할 경우 27일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의 4강전 승자와 결승전을 벌인다.

한국은 최근 이라크 청소년 대표팀과 악연이 깊다. 이 감독은 2012년 11월 U-19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2013 AFC U-19 챔피언십 결승에서 이라크와 맞붙어 1-1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1로 이겨 짜릿한 우승을 맛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여름 터키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선 이라크에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졌다.

한국은 6개월여 만에 자존심을 회복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 감독은 "현재 전력상 한국은 아시아 상위 레벨이다. 조금만 가다듬는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정윤준기자 yoo@

우즈 '텃밭'서 80승 도전

토리파인스 골프장서 열리는 파머스인슈어런스 출격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가 자신의 텃밭에서 올 시즌을 시작한다.

우즈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 토리파인스 골프장 남코스에서 열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을 올해 첫 대회로 결정했다. 토리파인스 남코스는 우즈가 총 8회 우승을 차지한 골프장이다.

우즈가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샘 스니드가 그린즈버러 오픈에서 이룬 단일 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PGA 투어 통산 승수에서도 80승을 기록, 스니드의 최다 우승 기록(82승)에 2승 차로 다가선다.

우즈는 1993년 2000년 2001년 이 코스에서 우승한 필 미컬슨과 이번 대회에서 겨루야 한다. 미컬슨은 지난주 유러피언 투어 아부다비 HSBC챔피언십에 출전해 공동 2위로 샷 감각을 조율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44·SK텔레콤), 양용은(42·KB금융그룹), 배상문(28·캘러웨이), 이동환(27·CJ오쇼핑), 노승열(23·나이키골프) 등도 출전해 샷 대결을 벌인다.

/유순호기자 sunn@

구자철 "마인츠서 더 나은 선수 될 것"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05 유니폼을 입게 된 구자철(25)이 이적 후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21일 마인츠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오래전부터 마인츠에 오고 싶었다. 마인츠에서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FC 아우크스부르크에서의 임대 생활을 마치고 올 시즌 VfL 볼프스부르크로 복귀했지만 부상 결장 이후 주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구자철은 최근 마인츠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고 팀에 합류했다.

그는 "박주호에게 마인츠가 멋진 팀이고 좋은 팬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무척 친한 사이인 만큼 박주호와 서로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코리안 듀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편 구자철은 19일 곧바로 연습경기에 나서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다.

/정의진기자

양학선 4년연속 최우수선수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4년 연속 대한체조협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체조협회는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조인의 밤' 행사를 열어 지난해 한국 체조 육성과 발전 및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학선은 지난해 벨기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종목 2연패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도 최우수선수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정윤준기자

히딩크 휠체어 귀향길 거스 히딩크 감독이 국내에서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고 2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카고 컵스 캠프 초청장 받은 임창용

임창용(38)이 초청선수 신분으로 시카고 컵스 메이저리그 캠프에 참가한다.

임창용의 에이전트 김동욱 스포츠 인텔리전스 대표에 따르면 컵스가 임창용을 논텐더(조건 없는 방출)로 풀긴 했지만 여전히 임창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적할 계획도 없었지만 이적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컵스는 지난해 12월 3일 임창용을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한 뒤 논텐더로 풀었다. 표면상 임창용은 자유롭게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컵스는 이미 2년 계약으로 2014년까지 임창용의 보유권을 확보했다.

컵스는 룰5 드래프트를 앞두고 유망주를 40인 로스터 안에 두며 보호하고, 논텐더 자유계약선수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40인 로스터에서 임창용을 제외했다.

임창용은 당초 25일 귀국해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지만 괌 훈련 환경에 만족해 다음달 초까지 괌에서 훈련하다 미국 애리조나로 건너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컵스 스프링캠프는 다음달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시작된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1일

LG	16	18	13	14	65
모비스	12	19	15	21	67

www.1588-2089.com

"당신의 일터는
행복합니까?"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장 방문교육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드립니다.

- 교육비용, 강사비용 전액 무료!
- 일정 : 2014.1.20.(월)~ 연중
- 필수 : 차별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 선택 : 성희롱 예방교육 or 최신 노동법 이슈

자율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장에서 스스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컨설팅 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 www.1588-2089.com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88-2089!

비정규직 차별!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상의하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